

■ 괴운(槐雲) 칼럼



육응기상(六應棄想)과 육근(六根)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사람이 살면서 절대 마음에 담아 두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버려야 할 생각들을 ‘응기상(應棄想)’이라 하며, 응기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6개를 ‘육응기상’(六應棄想)이라 부른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이다. 자살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 가치도 모른 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다. 둘째는 모든 걸 무언가의 탓으로 돌리는 ‘평계’를 말한다. 내가 못사는 것도 부모 탓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내 탓이 아닌 그들의 뜻된 심성 때문이라며 탓을 하는 생각이다.

셋째는 남을 헐뜯는 ‘시기심’이다. 이는 열등의식 때문에 나보다 돈이 많거나, 나보다 잘 생겼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누군가를 헐뜯거나 모함하는 것으로 시기심은 결국 자신을 망칠 뿐이다.

넷째는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흔히 ‘독선’이라 얘기 한다. 설사 내 말이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이 틀렸더라도, 공존의 풀을 지키려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포용하는 아량이 꼭 필요하다.

다섯째는 똑같은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부정적 사고’이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전극이 필요하다. 이 때 마이너스는 양 전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극을 말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와 같이 내 삶도 실패나 성공, 부족과 과잉의 절대기준은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잘 선택해서 매사를 긍정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섯째는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자만’이다. 비상한 재주를 세상이 칭찬해주면 더욱 자신을 낮춰 겸손해야 적이 생기지 않는 법인데, 자신의 재주를 믿고 세상을 무시하면 머잖아 그 재주는 세상의 외면을 받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게 예외 없는 세상의 이치이다.

이상으로 우리 삶에서 꼭 버려야 할 여섯 가지 생각인 육응기상(六應棄想)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여섯 가지를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자살, 평계, 시기심, 독선, 부정적 사고, 자만심이 여섯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야 하는 게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다음은 불교에서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하면 마음부터 먼저 건강해야 한다고 한다. 사람 몸에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이라는 도둑놈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 도둑놈을 잘 다스리면 오래살고,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사람은 빨리 생명을 잃는다고 한다.

육근이란 (1) 예쁜 것만 보려는 눈(眼)이란 도둑놈, (2) 자신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는 귀(耳)라는 도둑놈, (3) 좋은 냄새만 맡으려는 코(鼻)라는 도둑놈, (4) 맛있는 것만 먹으려는 입(舌)이라는 도둑놈, (5) 깨감만 얻으려는 육신(身)이란 도둑놈, (6) 마지막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려는 생각(意)이라는 도둑놈을 말한다.

이 여섯 도둑놈을 다스리는 놈이 마음이다. 따라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오래 살 수 있다. 그리고 불가에서 흔히 말하는 108번뇌는 애비설신의 6근과,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6경(六境), 좋음과 나쁨, 평등이라는 호악평등(好惡平等) 그리고 과거·현재·미래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생긴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6근에 6경을 더하면 12가 되고, 호악평등의 3을 곱하면 36이 되고, 그기에 과거·현재·미래의 3을 곱하면 108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108번뇌는 사람이 살아 있는 한 끊임없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번뇌를 조종하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여섯 가지 생각들과 잘 다스려야 할 육근을 늘 되새기면서 안동권씨 종보 독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이달의 책

태사문학

안동권문의 시조 태사공의 후예 문인들이 태사문학회(대표 권필원)를 작년에 발족하여 창간호로 태사문학을 발간했다. 창간호에는 각 장르마다 내노라하는 39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시는 권기만의 탑 등 69편이 실려 있고, 시조는 권순갑의 호 백령굴 등 6편, 희곡은 권해송의 온심맨션 1편, 수필은 권남희의 모고흡집작기 등 10편, 동시에 권희표의 참 좋은 날 등 3편, 동화는 권영호의 세 발 고양이 1편, 단편소설은 권녕하의 거미줄 등 2편이 드디어 우리가 되어, 우리가 엮은 우리의 글을 태사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내어 놓았다.(편집후기)

책 앞날개에는 양촌 권근(1352~1409)의 봄바람 언듯 불어

태사문학

청명절 가까우니로 시작하는 ‘살구꽃’이, 뒷날개에는 아동문학가 권정생(1937~2007)의 보리집 깔고 보리집 덮고/ 보리처럼 잡을 잔다는 ‘소’가 날개를 펴주고 있다.

권해우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은 축사에서 문학의 유전자를 타고난 역량 있는 후손들이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태사문학회를 발족시킨 것은 안동권문의 큰 경사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태사문학회를 통해 100만 족친이 서로 화합하고 안동권문의 인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21세기 한국의 인문 정신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3차)

회원 여러분의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4월 17일(일요일) 10:00

♣ 집합장소 : 상봉역(경춘선)

♣ 산 행 지 : 강촌구곡 폭포(산행 후 남춘천역 송어횟집 이동)

♣ 준 비 물 : 간식 및 개인 필요 장비

회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권오윤) : 010-9027-6179 총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2년 4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오준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월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입니다.
화창하고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세요!**

◆ 연락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2년 4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생활속의 한방건강



긍정에너지와 건강 ⑤

9. 선행(善行, Good deed)

참(眞)은 실제이고, 그것의 속성인 진리(眞理)는 그 실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생명으로, 자라나고 펼쳐질 수 있는 삶이다. 이 생명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선(善)이며, 그 선을 이루어 가는 행동이 선행이다. 선행은 착한 행동이고, 착한 행동은 좋은 일이다.

이 선행은 선행의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악행이 나타나기도 한다.

1) 선행의 본질

사람은 살 수 있는 한 끝까지 살아야하는 것은 절대명제로서 참이다. 철학에서 인간은 목적론적 존재라고 한다.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때문이다.

“에사냐고 묻거든, 웃지요”라는 정지용 시인의 시가 떠오른다. 행복하게 살면서 불행을 모르고 사는 삶도, 아픔과 고통을 빼자리에 느끼며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도, 그 자체가 삶의 진행인 과정적 행동으로 살게 된다.

사람은 그 존재가 삶의 목적이므로, 그 존재는 그대로 참이 되어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이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물을 필요는 없어진다.

존재의 가능성은 곧 생명을 의미하므로, 이를 자라나게 하고 펼쳐가는 삶의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어떠한 모습과 행동으로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한 과정적 가치를 따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적 가치 안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면서 지속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선행의 본질이다.

따라서 생명을 키우고 유지하는 행동은 선행이며, 생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죽이는 것은 악행으로 드러난다.

2) 선행과 악행의 방향

본질적 존재로서 ‘선’도 참이고 ‘악’도 참이다. 그러나 기능으로 보면, 선과 악은 참을 운용하는 행동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방향의 차이를 갖는다. 결국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선행은 존재를 긍정의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여가게 만드는 악행은 존재를 부정의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선과 악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필요하다. 이는 목적적 존재인 사람을 삶의 과정적 가치로 존중하고, 보존하고, 유지해 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3) 선행의 모습들

선행의 본 모습은 생명을 키우고 유지하는 행동이다.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성장 시기에 맞춰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한 긍정적 선행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병이 들거나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면역력이 약해서, 또는 바이러스, 바람, 기온 등의 환경의 침입이 강해서, 이들을 만나게 된다.

선행을 하려는 수단으로 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나지막히 말하는 언어습관이 필요하다.

선행을 하려는 수단으로 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권희완(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이 때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주고, 치료해 주고, 구조해주는 것도 긍정적 선행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사건 안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긍정적 선행을 하는 3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은인, 대인, 귀인이다. 이런 분들을 만나 내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됨으로서,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더 발전해간다.

(1) 은인(恩人, Benefactor)

은인은 나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다. 은혜(恩惠)는 큰 베풂인데, 그 베풂으로 나의 생명은 태어나고 자랐다.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 넓고, 드넓다. 나의 지식과 정신을 키워주신 선생님에게도 그 분을 높여 은사(恩師)라고 말한다.

(2) 대인(大人, Open minded person)

대인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마음이 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포용한다. 포용은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용서의 범위가 넓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행착오 내지는 실수를 여러 번 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나 실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타인에 대하여 피해를 주게 된다. 피해를 받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나를 용서하고 실수를 덮어주는 포용으로 나의 성장과 발전은 지속되었다.

(3) 귀인(貴人)

귀인은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 귀인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 해매고 있을 때나 잃었을 때, 등대가되고 길잡이가 되어준 사람이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 그것을 채워준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귀인은 자신을 회생했을 수도 있다.

4) 필요악

필요악은 선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악의 수단을 불가피하게 사용해 할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세제가 물 등의 환경을 오염시킨다. 나와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고 버린 쓰레기가 하늘이나 땅, 사회를 오염시킨다. 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얻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차는 뒤쪽으로 공해물질을 낸다.

아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큰소리나 모멸적인 언행이 그 사람에게 심리적인 자괴감을 주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나지막히 말하는 언어습관이 필요하다.

선행을 하려는 수단으로 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보슬비 간간이 내리는 그해 가을
동네방네 떠돌이 역병이 번져
다섯 해 살다 세상을 하직한 손녀가
병간호하던 할머니께

“할머니 나 죽으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
억장이 무너지는 절규를 했다.
아버지 독한 술 한 사발 벌컥벌컥 마시고
어머니는 골목마다 읊을 읊을 펴 나르는
마른 잎 같은 내 유년의 기억은 아프다.

빌어먹을 세상!
그게 나의 이웃 동생이었다.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엮어진 이별들은
그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얼마 후 해당화 한 묶음
기 작은 묵지 위에 시들어 있었다.

한국문인협회 금천지부 회장, 한국창작문학 회장 역임, 태사문학회 대표
시집 「흔돈」, 공저 「이 시대 번뇌를 넘어서」 외
다수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3만원
종보 대금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2022년 3월호와 함께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명이인 등으로 납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오니 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과 거주지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종회)

국민 033237-04-006941(안동권씨 대종회)

♣ 문의전화 : 02-2695-2843-4

안동권씨 대종회